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동강과 수종합농장과 대동강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지구 전경사관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전망대에 오르시여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에서 올해 당시 제시한 파일 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을뿐만 아니라 알알이 풀라 수확한 첫물사과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는데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파일향기가 가득 넘쳐나는 농장의 파수발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파일대풍을 안아올수 있은것은 인민보안성과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인민들에게 파일을 풍족하게 먹이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의도대로 정보당 50의 파일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파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 생산성이 높고 맛이 좋은 파일종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량품종의 파일묘목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 파일과 축산, 축산과 파일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워 파일원의 지력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문제, 파일업의 세계적인 발전동향에 맞게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할데 대한 문제, 전국의 파일농장들과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문제 등 농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파일나무숲과 어울리게 들어앉은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고 또 보시며 볼수록 멋있고 흐뭇하다고,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은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무릉도원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희한한 광경은 사회주의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그루의 파일나무를 가꾸어도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찰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



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더 많은 파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새로 건설된 대동강돼지공장을 찾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천차적인 힘을 넣어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성으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통합조종실, 종축호동, 육성호동, 비육호동, 고기기공장, 유기질복합비료직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조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돼지공장에서 축산물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통합조종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

돼지공장에서 당의 의도대로 돼지고기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고 파일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해 놓았다고 만족해 하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을 참관시켜 이 공장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돼지공장에서 우량품종의 돼지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돼지사양관리방법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위생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돼지고기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 가까운 년간에 1,000t의 돼지고기를 생산할데 대한 문제, 고기가공장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고기가공품의 가치수를 늘리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레 대한 문제, 유기질복합비료 생산량을 더욱 늘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파일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돼지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축산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조선이다. 그런 조선때문에 나는 밤잠을 설친다.』
미래평양사령관 해리스의 말이다.

세계에서 제노라하는 《유일초대국》의 군장성의 실토라고 하기엔 너무도 궁색한 말이다.

그러나 질량적으로 날로 강화되는 공화국의 막강한 군사적 잠재력과 핵위력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게 된 미국의 처지로 보면 능히 그럴만도 한 것이다.

이제 미국은 저들의 《전략적인내》가 빛어낸 공화국의 군사적위력 강화를 고스란히 앉아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공화국의 군사력은 급속히 강화발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공화국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뒤진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매달아놓았다.

설상가상이라고 올해는 미국에게 더 악몽적인 한해로 되고 있다.

새해의 서막을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연 공화국은 련이어 신형대구경방사포의 위력과 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과 함께 지상대지상증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군사강국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이것은 미국을 혼비백산케 하는 공화국의 승전축포와도 같은 것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가 《북파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긴장을 막아야 한다. 대화와 조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하였겠는가.

영원한 강성번영의 길

이처럼 오늘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세계경찰》로 자처하며 큰 나라, 작은 나라 할것없이 이래자저래하는 미국을 흐르게 다불리고 있으며 겨레의 삶의 터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있다.

선군이라고 하면 공화국의 인민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한평생 멀고 험한 선군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며 고마움이다.

그이께서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선군의 총대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시였다.

지금은 누구나 선군정치란 말을 떼어롭게 외우지만 존엄

한 시련의 나날 인민들이 식량난, 전기난으로 고생을 하는 가슴아픈 정경을 보시면서도 선군의 길을 택하셔야만 했던 위대한 장군님의 심증은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수 없는것이였다.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공장들이 숨이 죽고 달리던 혈차들이 몇어섰으며 행복만을 누리던 사람들이 가혹한 생활난으로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된 최악의 시련의 시기였다.

하기에 그 나날을 돌이켜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실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는 나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지금은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봐야 한다, 사회주의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푸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난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갔는가 하는것을 이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자식을 위해 멀고 험한 고행길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험난한 선군길을 헤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우이 있어 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덤벼들수 없는 무진 막강한 군력을 가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핵보유국으로 올라설수 있었던것이다.

언제인가 《미국의 소리》방송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대하여 이렇게 평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가 발산하는 힘의 거대한 폭과 무한대한 깊이를 가늠할수도 갈수도 없다는데 워싱턴의 비극이 있다.』

그렇다.

미국은 선군의 위력을 떨치며 사회주의강국으로 키운다는 공화국을 너무도 모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가 발산하는 힘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먼 앞날까지도 내다보시고 마련해놓으신 공화국의 막강한 군력의 그 거대한 폭과 무한대한 깊이를 가늠할수도 갈수도 없는 것이다.

선군이야말로 공화국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겸고결으신 선군장정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과의 지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철령과 오성산으로부터 서남전선의 최남단 열점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군의 싸움준비를 실전정황에 맞게 완성하도록 하시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고 국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으시는 그의 정력적인 정도에 의하여 국가방위력은 더욱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침략세력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그가 누구상 어디에 있든 임의의 지점에서 임의의 시각에 최후멸망의 불벼락을 안길수 있는 위력한 핵보검을 튼튼히 틀어쥐게 되였다.

지난해 8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되였던 위험천만한 사태가 평정되게 된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견결한 반제자주의 신념과 조국수호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단호한 결심과 탁월한 지략,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자위적역제력과 전체군대와 인민의 결사항전의지가 안아온 자랑찬 승리이다.

희세의 천출명장이 시여 위대한 선군령장이 신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애국위업은 빛나게 이어지고 있으며 공화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을 떨치고 있다.

8월 25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첫 자우을 새기신 선군절이다.

선군절과 더불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에서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것이다.

리복순



선군령도의 나날에 선군의 가치 더 높이

선군은 곧 자주이고 존엄이며 애국, 애족이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하신 교시이다.

선군은 민족자주위업을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는 길이며 그 어떤 엄혹한 정세와 시련속에서도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조국을 수호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루려고 나갈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의 보검이다.

주체94(2005)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들었기때문에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으로부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힘이 없으면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여도 어데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이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시대적물음에 다시금 명백한 대답을 주시는 가르침이였다.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일군들을 만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이다. 우리는 지난날 군력이 약하여 나라를 통제로 잃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피눈물나는 혁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통락물로, 희생물로 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며 따라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도록 할데 대한 문제, 군민대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할데 대한 문제,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하는 문제 등 군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본사기자

인민들이 자애로운 어버이로, 친근한 형도자로 신뢰하며 받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나날에 하시는 뜻깊은 말씀들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과 존경의 세계에로 이끄는 힘이 있으며 막혔던 길도 밝혀주는 현명한 예지가 빛발치고 그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가게 하는 강의함이 막동친다.

본사편집국은 이번 호부터 현재 형식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 서 하시는 뜻깊고 감동깊은 말씀들에 어리여 있는 특출한 인간상, 위인적풍모의 세계를 전한다.

* *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제일 훌륭한 것, 제일 좋은것을 보고 대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수령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 이의 이 말씀에선 선대 수령들에 대한 고귀한 충정과 그리움, 수령님들의 유훈과 염원을 반드시 현실로 꽂과시려는 의지와 결심이 펴려되어있다.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 가시여서도, 동서해의 포구며 파원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인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을 보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새로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이 궁궐 같은 요람에서 세상에 부럽없

는 행복넘친 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들에게 있어서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였고 한평생 온갖 사랑을 다해 품들여 키우신 꽃봉오리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궁전과 애영소들을 짓도록 하시고 나라가 어렵고 힘겨울 때에도 후대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 비끼지 않도록 극진히 보살펴주

현지지도에 비낀 위인의 거룩한 세계

충정과 그리움의 세계

신 수령님들이시였다.

어린이들을 위해 더 좋고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시려 늘 마음씨오신 수령님들이시였기에 희한하게 일떠선 원아들의 궁전만이 아닌 애영소와 민들레학습장공장,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을 돌아보실 때에도 원수님의 심중엔 수령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으신 마음이 그처럼 간절하시였다.

수령님들의 리상과 염원을 현실로 펼치시고 그것을 보여드리고 아뢰여드리고 싶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정의 마음은 이 나라 인민이 사는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있다.

지난해 8월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파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던 수령님들께 가지마다 주령진 파일들을 보여드릴수 있

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다. 몸소 북청군의 험한 산발, 둔덕진 파일발을 오르내리시며 서리내린 파일에 떨어진 사파를 손수 수건으로 소중히 닦으시고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북방의 인민들을 위하여 사업수첩의 갈피에

《자강도… 복승아》라는 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다. 그이의 인민사랑을 이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을 애국유산, 애민유산으로 남기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절절하게 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높이 받드시는 그이의 숭고한 도덕의리, 물같은 충정의 세계를 본다.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편철하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두쟁해야 한다고 하시였고 현대적으로 개건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세상에서 제일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더 질좋

게 생산하는것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칠저히 관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들께 보여드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는 원수님의 말씀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주신 강국의 씨앗들을 하나하나 알찬 열매로 주렁지우시고 아뢰여드리는 원수님의 충정의 보고이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한생의 염원과 리상을 이땅우에 기어이 현실로 펼쳐가시려는 원수님의 의지의 선언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위업을 실현하는것을 첫 자리에 놓으시고 애국애민의 자우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수령님과 장군님시대의 모든 영광과 승리가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재중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뜻깊은 대회

지난 8월 10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6차대회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총련합회 일군들, 산하지구협회 회장들, 지부장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일군들을 비롯한 대표, 방청들이 참가하였다. 심양주재 공화국 총령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표단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6차대회 앞으로 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해외동포사업국 그리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의 축전들이 전달되었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업총화와 사업에 대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규약수정에 대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지도기판선거에 대하여》의 3가지 의정이 토의되었다.

첫째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은복의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6차대회는 총결기간 사업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펼쳐주신 휘황한 설계도 따라 총련합회사업에서 일대전성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목표와 방도들을 토의 결정함으로써 조직을 명실공히 김정은해외조선공민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6차대회를 맞으며 전체 일군들과 공민들의 다함없는 흠토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삶의 은인이 신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숭고한 경의를 드리었으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5차대회후 총련합회가 걸어온 지난 7년간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자기발전의 전성기를 펼친 격동적인 시기였으며 전체 재중조선공민들이 오로지 자기 수령, 자기 조국만을 따르고 밟들어온 애국충정의 나날이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 해외교포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늘처럼 믿고 살던 민족의 어버이를 잊고 몸부림치는 해외동포들을 따사로운 태양의 품에 안아 사랑의 위로연도 베풀어주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친혈육의 사랑과 정을 다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친아버지 사랑 그대로 청년절경축행사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비롯한 조국의 큰 경축행사들에 불리주시고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었으며 우리들이 올리는 충정의 맹세

도 대견하게 들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참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거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모든 재중조선공민들이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오로지 조국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변심없이 애국충정의 길을 꽂듯이 걸어올 수 있게 한 자양분이였고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그는 총결기간 총련합회가 조직을 강화하고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애국사업에서 거둔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명실공히 김정은해외공민

데 대한 문제에 언급하였다.

그는 총련합회와 각급 조직들의 사상의지적, 동지적단합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할데 대한 문제,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애국운동을 전조직적인, 전공민적인 사업으로 특색있게 벌려나갈 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오늘 총련합회앞에 나선 파업은 방대하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지만 회세의 천출위인 이신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해외교포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고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애국애족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전체 재중조선공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재중조선인총련

합회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모든 일군들과 공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밟들어 필승의 신심드높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재중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토론했다. 대회에서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규약수정과 지도기판선거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편지에서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슬하의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언제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결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고 하면서 백승의 탁월한 령도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원수님께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러면서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대비약, 대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는 조국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사업전반에 철저히 구현하여 총련합회의 강화발전과 통일애국운동에서 일대전환을 일으켜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대회에 앞서 9일 공로있는 일군들과 공민들에 대한 국가표창전달모임, 사진 및 도서, 미술작품전시회, 예술공연 등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조국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오래동안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일해왔지만 이렇다하게 해놓은 일이 적어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6차대회에 참가하고 높은 국가표창까지 받아안고 보니 하늘같은 조국의 사랑과 믿음을 무엇이

라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내 비록 여든이 넘은 몸이지만 조국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있는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 윤정숙

특색있는 기여를

꿈이 성취되는 조국의 부강번영에 더 잘 이바지해 갈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류례없는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끄떡함이 없이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비약해가는 조국의 억센 기상은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있다.

몸은 비록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어머니 조국에 두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특색있는 기여를 해나가겠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송영철



해외조선공민이 된 긍지를 안고

이번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6차대회에 참가하면서 다시금 절감한 것은 백승의 탁월한 령도로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주체조국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이다.

그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세인을 놀래우는 대비약, 대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조국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사업전반에 구현하여 총련합회의 강화발전과 통일애국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류창환

6. 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역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71년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고 유구한 역사와 넋이 깃들어있는 정신문화적 재부와 자원을 깡그리 약탈당한 것은 물론 우리 말과 글까지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온 우리 민족이다.

40여년에 이르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시기 각계각층의 수백만 우리 동포들은 일본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군수기업의 노예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목숨을 잊고 전대미문의 야만통치와 수탈에 신음해야 했다.

장기간의 굴함없는 피어린 투쟁으로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기는 하였으나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져 장장 70여년 동안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해방 71년, 민족분열 71년이 되는 오늘 이 땅우에는 여전히 전쟁

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있다.

6. 15가 안아온 모든 결실이 부정당하고 북남사이의 접촉과 대화와 회합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분열을 지속시키려는 내외반통일 세력들의 책동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이 실현되고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며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여기에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6. 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겨레의 이러한 통일념원을 앞장에서 실천해나갈 굳은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면서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자!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분별과 대결을 강요하는 내외반통일 세력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온

겨레의 단합을 실현해나가자!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민족의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며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나가자!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실현해나가자!

평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자주통일을 이룰 수 없고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평화를 영원히 지켜나갈 수 없다.

겨레의 삶의 터전이며 후손만대가 행복을 누려갈 삼천리강토우에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전쟁대결책 등을 중지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자!

해내외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 대회와 통일회합을 복원하고 활성화하자!

접촉과 대화가 없이 평화도, 통일도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상대방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속

에서는 수십년동안 쌓인 불신과 대결의 잔재를 청산할 수도, 통일운동을 전진시킬 수도 없다.

6. 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 조국해방 71돐을 맞으며 서울에서 북, 남,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이 참가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던 민족공동행사가 내외반통일 세력의 동족대결과 방해책동으로 비록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해내외 각계각층의 접촉과 통일회합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앞장에서 노력해나갈 것이다.

민족공동행사들과 함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학술, 언론, 종교 등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단체들 사이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를 적극 추진해나가자!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사

이의 다양한 접촉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가자!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북과 남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마련한 통일과 평화번영의 귀중한 결실들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다시 열어나가자!

8천만 동포들이여! 내외반통일 세력의 분열과 대결정책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이 힘과 지혜를 합쳐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놓았던 경험과 성과들에 기초하여 오늘의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

민족분열과 전쟁대결을 끝장내고 공고한 평화와 자주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자!

6. 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 15 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16년 8월 15일

공동보도문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남측추진기획단,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 회의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북측이 제안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과 그 최고형식인 련석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당면활동방향에 대하여 협심탄회하게 협의하였으며 조국해방 71돐 민족공동행사와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 및 각계총통일회합문제 등에 대해서도 토의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 조국해방 71돐을 계기로 진행하기

로 하였던 련석회의가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비록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련석회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련석회의 성사를 위한 활동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북, 남, 해외 대표단은 련석회의 개최와 함께 8. 15 민족공동행사,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 등이 남

측당국의 불허로 성사되지 못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북, 남, 해외의 접촉과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을 파악하고 전개해나가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당면하여 북파남, 해외에서 련석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에서 준비위원회가 나오는데 따라 전민족적인 공동준비위

북과 남, 해외는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 협의하면서 련석회의 성사를 비롯하여 통일회합과 접촉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적극 협의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2016년 8월 15일
중국 심양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의 문어구에까지 치달았던 지난해의 8월 사태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되여온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8월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미국의 조종하에 그 무슨 『지뢰폭발사건』과 『북포탄발사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갔다. 당시 사태는 원인모를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으로도 전면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조선반도의 위급한 실태를 뚜렷이 부각시켰다. 더우기 그때는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려놓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최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이다. 이런 것으로 하여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평하였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다.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에서 공화국은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주동적으로 성사시켜 민족의 의사가 반영된 공동보도문을 합의발표함으로써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적계기를 마련하였다.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하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으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가 평화와 안정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처부실수 있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침략자들에게는 자비를 모르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세상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위력하였던지 미국은 『북이 예상치 못한 공격방법으로 미국을 놀라게 할것

로 보인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되어있던 미2사단의 사격훈련을 비공개로 조용히 치르고 남조선에 대한 전략무기들의 반입도 자체하였다. 상전을 민고 기세등등하던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황이 든 떡잎신세가 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의지앞에 머리를 수그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킨 지난해 8월의 무전무혈의 대승리는 위대한 령장을 모신 공화국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고 내외호전세력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무릇 과거를 돌아켜보는 것은 미래를 위한 좋은 일이라 하였다.

8월사태 이후 공화국은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이루어진 협약의를 귀중히 여기고 북남관계의 획기적개선을 위하여 성의있고 전설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다. 혁신적인 울해신년사에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였고 지난 5월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련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였다. 공화국이 조국해방 71돐이 되는 올해

8. 15를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마련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심성의의 노력을 한것도 어렵게 하나 지난 8월 사태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는 것을 막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진정성없는 제안』이니,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위장평화공세』이니,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며 오직 제재와 압박만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는 횡설수설을 늘어놓으며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에 매여달리였다.

북과 남, 해외는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 협의하면서 련석회의 성사를 비롯하여 통일회합과 접촉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적극 협의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궤변으로써도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신성한 조국강도를 미국의 영구적인 식민지도, 외세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 극악무도한 죄악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국과 야합하여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싸드』 배치와 각종 전쟁연습까지 강행하면서 또다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로하여 오늘 북남관계는 둘이킬수 없는 파국상태에 처하였고 조선반도는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그에 대응하는 주변국들의 대결장으로 화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핵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8월 사태 이후 지난 1년간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원원에 도전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남조선의 친미반역 『정권』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궤변으로써도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신성한 조국강도를 미국의 영구적인 식민지도, 외세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 극악무도한 죄악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무진막강한 자위적무장력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해나가려는 공화국의 의지와 노력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개는 짖어도 렬차는 간다고 남조선의 반역 『정권』이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과 전쟁도발에 미쳐 날뛰여도 공화국은 그것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온 겨레가 바라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툭하면 〈종북〉이라고 혜폐당에 대한 참을수 없는 증 한다. 여러분들도 〈종북〉 오와 분노의 폭발이다. 이것이 소리를 듣지 않는가? 우릴 두고 〈종북〉이라고 하는 데 나는 경북(경상북도 사람)이다.』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반대하는 초불집회에서 김제동이라는 이야기꾼이 이렇게 말했다.

성주군청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한 그의 말이 지금 남조선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고 있다.

지금 남조선보수당은 생존권을 위해 투쟁에 뛰어나선 성주사람들에 대해 『종북』을 운운하며 철저한 수사와 감시를 떠들어대고 있다.

저들의 반인민적통치실현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 대해 무력대고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성주군을 비롯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적인 『싸드』 반대투쟁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동족대결과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미국의 전쟁사환군노릇을 하는 박근

규탄반는
《종북》 모락노동

본사기자 강류성

《싸드》는 옮겨놓아도 재난형이

최근 남조선집권자가 《싸드》 배치를 반대하는 각계의 격노한 민심을 누르려고 《제3지역검토》 망발을 내뱉었다가 졸경을 치르고 있다. 지난 4일 박근혜는 경상북도지역 《국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을 조사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싸드》 배치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치명적인 해독성과 남조선전역에 초래될 엄중한 후파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싸드》의 핵심 요소인 X밴드 레이다(AN/TPY-2)는 인체와 환경에 해를 주는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어디서나 배척을 받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이 같은 형의 레이 라이면서 《싸드》 배치반대 여론을 누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양은 수에 속아 넘어갈 남조선인들이 아니라 《싸드》 배치

과 전자파에 의한 구토와 어지럼증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싸드》 레이다에서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면 《안전》 하다느니 뛰어 하면서 주민들을 속여 넘기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써왔다. 집권자의 《제3지역검토》 발언도 바로 그려한 연장선에서 흘러나왔다. 남조선군부에 거리들은 그들대로 박근혜의 《제3지역검토》 발언이후 성주군안의 여러 곳을 돌아나며 제3의 《싸드》 배치예정지를 답사한다 어제나 하는 분주함을 피워냈다. 지어 미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과 미국 방성 미싸일방위국 국장까지 남조선에 들어온 《싸드》 가 《주변환경이나 공기, 토양, 동식물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짓말까지 펴 놓으면서 《싸드》 배치반대 여론을 누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양은 수에 속아 넘어갈 남조선인들이 아니라 《싸드》 배치

지로 예정된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지난 15일에도 근 1000명의 주민들이 《집단삭발식》을 가지고 《싸드》 배치를 결사 저지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싸드》 배치지지를 성주군 내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와 린접한 김천시에서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싸드반대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도로를 끊어놓으려고 가로막고 시위에 떨쳐나섰다. 김천시의회도 생명을 발표하여 《김천시 민생존권에 위협을 주고 보장이 없는 《싸드》 배치는 절대 반대하며 끌까지 투쟁해나간다.》는 립장을 밝혔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이 박근혜의 《제3지역검토》 망발이후 《싸드》 반대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싸드》는 성주군 주민들만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을 통채로 해치는 불행의 화근정으로서 남조선경내의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인민들의 반발을 피할수 없다.

재앙을 불러오는 백해 무익한 우한단지인 《싸드》를 치마쪽에 싸들고 남조선땅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그 무슨 《최적지》를 찾아보려고 날치는 박근혜야말로 《싸드》 보다 더한 우한거리, 요물마녀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터전인 남조선팡에는 《싸드》를 배치할 곳도, 미제침략군이 틀고 있을 자리도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험을 몰아오는 《싸드》 배치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제3지역검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을 핵재난에 물어넣는 침략적인 《싸드》 배치결정을 백지화하고 미군을 몰아내는 데 있다.

박근혜가 《제3지역검토》와 같은 오설까지 펴 놓으며 끌끌내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인다면 민심의 종오의 철주를 피할수 없을 것이다.

김연희

밀어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

고 있다.

《련합뉴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경상북도 성주에서는 이 지역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여 군전체가 투쟁에 떨쳐나섰는데 그 열기가 간단치 않다고 한다. 《정부》

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무슨 제3의 후보지로 뭐요 하면서 《대통령》과 그 출

들이 성주군민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회유기만하려 하지만 고향을 지키려는 그들의 투쟁은 더욱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

기어이 이 땅에 외세의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 동족대결을 일삼고 온 강도를 외세에게 통제로 내맡기려는 역적폐당의 사대대국적인 행위가 빚어낸 삭발식,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파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깨어야 국민을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생존권과 삶을 우롱하는 보수집권세력이 정신을 차릴수 있겠는가 하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성주 《싸드》 배치 철회 투쟁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이 제3후보지에 대해 협의하려 온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싸드》 배치 그 자체를 반대하며 그 어떤 다른 장소의 배치도 허용하

본사기자 강류성

이 남에서는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을 가리켜 보수의 아성이라고 부른다. 이 남에서 지역감정이 오랜 세월 고착되어 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지 지금의 현 집권자인 박근혜 역시 그 덕을 단단히 보았다. 4년 전 《대선》 때 박근혜가 보수정당의 대표자라는데로부터 경상북도와 대구에서 80%의 지지표를 받은 사실이 이를 립증해 준다. 그만큼 보수지역 민심이 박근혜를 곤경에 빠지고 지지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이 지역의 민심

이 부글부글 끓

고 있다.

이제

여기

여

8. 15에 불어댄 대결녁두리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8. 15경축사》라는 것을 하였다.

외세에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은 친미친일매국노가 그 무슨 《경축사》를 했다는 것도 가관이지만 내뱉은 말 또한 내외를 경악케 하는 계변과 동족대결의 악당뿐이었다.

박근혜는 남조선을 외세에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철저히 예속시켜놓고도 《자신감》이니, 《제2의 도약》이니 하는 황당한 나발을 불어대며 남조선 각계가 반대하는 반역정책들을 계속 강행하려는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그런가하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는 《싸드》배치 결정 등 자기의 친미역적행위를 정당화하는 장광설도 들어놓았다.

특히 역도는 《북의 핵무기개발은 용납할수 없다.》느니, 《중단》이니, 《국제사회와의 공조》니, 《국제적고립》이니 뛰니 하며 동족대결 망발을 거리낌없이 내뱉었다.

한마디로 남조선집권자의 이번 《경축사》라는 것은 부패무능한 반역통치로 남조선을 전대미문의 혼란과 갈등, 불법무법의 생지옥으로 전락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자기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뻔뻔스러운 넉두리로 일관되여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도 집권자의 이번 망발을 《력대 최악의 망언》, 《뻔뻔한 자기위안》, 《현실인식조차 없

는 후안무치한 고백》 등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고 있다.

8. 15가 과연 어떤 날인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날이다. 그렇다면 일제가 40여년간 조선민족에게 저질렀던 만고의 죄악을 단죄하고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미국을 규탄하는것이 마땅할것이다. 또 해방과 함께 이어진 나라의 분열이 장장 70여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바른 말부터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집권자는 민족분열의 원흉인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배치를 정당화하는 계변만을 늘어놓고 백년숙적인 일제의 천인공노할 파괴죄악에 대해서는 입도 병긋 하지 않았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에서 《일본언론들이 박(대통령)의 광복절경축사에 박수쳤다.》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그러고도 모자라 동족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악랄하게 걸고드는 역겨운 추태까지 부렸으니 외세에게는 삽살개, 동족에게는 미친개가 되어 짓어대는것이 현 남조선집권자의 못된 근성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이번에 역스러운 낯짜를 내밀고 자기의 친미친일매국행위를 합리화하고 공화국의 정당한 핵억제력을 결고 규하며 자살하고, 로인으로 살아간다는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있는 사람 못살 생지옥

가 정의를 란도질하는 남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동족에 대한 압박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식민지총견인 역도가 저들의 범죄는 당반우에 올려놓은채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공화국의 정의로운 핵보검을 결고든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제아무리 양탈을 부려도 미국의 강도적요구를 받아물고 남조선을 미국승냥이들이 더욱 살판치는 소굴로, 대국들의 핵대결장으로 만든 만고죄악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또 가판은 남조선을 빙부격차와 실업률, 자살자수에서 세계1위의 오명을 쓴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박근혜가 그 누구의 《기본적인권》이니, 《인간적삶》이니 하는 주제넘은 입방아질을 해댄것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 남조선을 《태여나지 말았어야 할 곳》, 《부자로 태여나야만 살아갈수 있는 곳》이라고 저주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지옥같은 삶이 너무도 고달파 온 가족이 동반자살하고, 《미친 등록금》 때문에 멀쩡한 청년들이 생을 포기하고, 《민주주의의 오스朋찜수용소》, 인권의 오스朋찜수용소를 절규하며 자살하고, 로인으로 살아간다는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있는 사람 못살 생지옥

이 남조선이다. 《지옥같은 세상》이라는 의미의 《헬조선》은 역적파당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류행어로 되고 있다.

여도가 제입으로 쏟아낸것처럼 남조선을 사람못살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사회전역에 널리 퍼지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온 남조선땅을 민주, 민권, 민생의 동토대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인 박근혜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을 꽂아꿔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차서 헐뜯는것은 정신병자의 잠꼬대에 불과하다.

더우기 용납할수 없는 것은 역도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그 무슨 《공포》를 걷어내야 한다고 짓어대다 못해 어리석기 짹이없는 《흡수통일》의 개꿈까지 로끌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다.

미국의 사라구니에 불어진명을 겨우 부지하며 우리 겨레에게 불행과 재앙을 몰아오는 박근혜와 같은 희세의 대결아녀가 살아숨쉬고있다는것은 민족의 비극이고 수치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요사스러운 계변과 대결망동으로 파멸의 나락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할수록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속에 비참한 운명을 재촉할뿐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최광혁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끌어간다

고 회책

최근 미국과 남조선호전왕들의 북침전쟁소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태평양의 한가운데 등지를 든 팜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아명높은 핵전략폭격기 비롯한 《3대핵타격수단》을 총루입하여 사상 류례없는 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였다. 이제 와서는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저들의 합동군사연습의 목적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노린 《참수작전》과 전략적요충지들을 불의에 점령하기 위한 기습상륙작전, 공화국의 핵타격수단들에 대한 선제타격작전 등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의 실전가능성을 확정하는데 있다고 내놓고 광고해대는 판이다.

어디 그뿐인가. 살인악마의 무리로 악명을 떨친 미룩해공군의 특공대작전집단과 핵전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들을 수시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어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북침전쟁기도를 토글적으로 드러내놓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더우기 지금 상전과 주구의 공모결탁하에 벌어지고 있는 《싸드》배비책동은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오늘 사소한 우발적사건에 의해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질수 있는 조선반도의 첨예한 긴장상태는 세인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3대핵타격수단》을 총루입하여 사상 류례없는 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였다. 이제 와서는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저들의 합동군사연습의 목적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노린 《참수작전》과 전략적요충지들을 불의에 점령하기 위한 기습상륙작전, 공화국의 핵타격수단들에 대한 선제타격작전 등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의 실전가능성을 확정하는데 있다고 내놓고 광고해대는 판이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긴장시키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핵전제공격은 결코 그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즉시적으로 무자비한 타격으로 도발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는것이 공화국의 단호한 입장이고 의지이다. 불을 졸기는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내외호전광들은 불뭉치를 들고 화약무지에서 뛰어드는 저들의 무모한짓이 초래할 후과를 명심하고 자중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내외호전세력들의 살인전쟁장비증강책동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개시를 앞두고 강행되고있는것이다. 웅군 하나님의 전쟁도처를 수 있는 방대한 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에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한 매우 위험천만한 핵시험전쟁,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집결시켜놓고 전쟁열에 둘둘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전쟁연습을 기회로 무모한 북침불장난소동을 피우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긴장시키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핵전제공격은 결코 그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즉시적으로 무자비한 타격으로 도발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는것이 공화국의 단호한 입장이고 의지이다. 불을 졸기는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내외호전광들은 불뭉치를 들고 화약무지에서 뛰어드는 저들의 무모한짓이 초래할 후과를 명심하고 자중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민심에 끌까지 도전하는 독재자

남조선집권세력이 극도의 통치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대국, 자살대국, 참사대국 등 수다한 오명들과 《헬조선》, 《수지론》, 《망한 민국》과 같은 류행어들은 남조선 사회의 참혹한 실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매국적인 《싸드》배치와 《위안부지원재단》설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의 투쟁으로 하여 가뜩이나 기우뚱거리는 현집권세력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다.

이 모든것은 《유신》독재자의 힘을 물려받은 현집권자의 극단한 파쑈통치, 불통정치, 사대국정치의 응당한 귀결이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현남조선집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장, 차관들에 대한 교체놀음을 벌려놓았다.

그 결과로 교체된 장, 차관자리에는 현집권자의 핵심집권, 판료출신들이 들어앉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자만 보아도 《대선》때부터 현집권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대변인노릇을 하고 집권이후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던 핵심집권이다.

이보다앞서 《새누리

장관들은 그대로 두었으며 더우기는 부정부패행위로 비난의 칼도마에 오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를 사퇴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당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는 《불통개각》, 《돌려막기식 짤끔개각》, 《일반통행식 개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심은 이미 지난 4. 13총선에서 민심을 외면하고 독선과 독재통치, 불통정치를 일삼는 현집권세력에게 응당한 심판을 내리였다.

하지만 민심의 경고를 막고 한 현집권자는 자신의 목줄을 조이는 통치위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출로를 파쑈독재정치의 강화에서 찾고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집권여당과 《정부》요직들에 자신의 손발을 대신할수 있는 하수인들을 내세우는데 매우 딜할 필요가 없다.

현실은 남조선집권자가 민심이야 어떻든 자신의 독재통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파쑈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의 길로 계속 내달리려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에 역행하는 현집권자가 가당을 종착점은 비참한 파멸뿐이다.

실지로 현집권자는 사회 각계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국방부나 통일부를 비롯한 주요 부서의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그 무슨 《대북제재효과》에 대한 자화자찬의 목소리가 울려나와 사람들을 웃기고있다. 지난 17일에도 남조선통일부 대변인은 기자들앞에서

《상당한 제재》국면에서의 암박감》이니 뛰니하면서 마치 저들의 제재가 《성과》라도 거두는듯이 횡설수설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제재효과》에 대해 떠들어대는것은 파산위기에서 직면한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미화분식하고 합리화하려는 단말마적발악이 불과하다.

지금 남조선보수파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고 있는 제재소동이 달달로

하고있지만 그 모든 발악은 무용지물에 불과한것으로 되고있다. 오히려 제재 광풍속에서도 레도도를 중심으로 한 공화국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백배, 천배로 강해졌다.

지난 6월에 있은 지상대지상중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의 성공이 보여주듯이 군사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련이어 이루어져 있다. 경제건설분야에

바위를 치는것에 불과하다는것은 현실을 통하여 남김없이 립중되고있다.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적대세력들이 대변인은 기자들앞에서

제아무리 제재를 부르짖으면서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그 짓부서리며 려명거리건설이 힘차게 다그쳐지고 2001년 전투의 불길속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파혁신이 창조되고있는것이 오늘날 공화국에 펼쳐진

서도 제재소동을 보란듯이 짓부서리며 려명거리건설이 힘차게 다그쳐지고 2001년 전투의 불길속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파혁신이 창조되고있는것이 오늘날 공화국에 펼쳐진

불체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제재효과》에 대해서 들어대는것은 소가 웃다가 끄러미 터질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와 언론들이 당국의 《대북제재》놀음을 놓고 《빈털구지

굴러가는 소리가 더 크다.》고 야유조소하면서 《제재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문제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때문에 사회전반이 벌등지 쑤셔놓은것처럼 일대 혼란상태에 빠져들어 날마다 시위와 집회가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등 남조선사회는

말그대로 아주라장을 방

리 가라, 제발 평화롭게 살고싶다.》, 《북 핵포기하지 말아, 핵보유한 상태로 통일하자.》며 동족대결의 망발을 또다시 쳐친 박근혜를 준렬히 단죄 규탄하고 있다.

또한 친미친일매국노인 박근혜를 두고 《솔직히 오바마가 《싸드》배치하고 시기들고 연설하지, 이런 미친년.》, 《쪽발이 앞잡이 애비의 딸년과 쪽발이 당 개누리, 환상적인 조합이다.》, 《박근혜임기 중 독도가 일본땅될것 같다.》, 《지애비는 독도합의, 딸년은 위안부합의.》, 《〈나는 친일파다. 내 아버지는 황국신민이다.〉

일본의 《평화헌법》개정-재침을 위한 발판 마련

지난 7월 20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7월 10일 참의원 선거로 개헌세력이 개헌안발의 가능의석수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인 65%가 국회에서의 개헌론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개헌안을 발의하는데 충분한 수는 162석, 이중에서 개헌세력인 련립여당이 161석을 확보하였는데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의원 4명

을 더하면 무난하게 개헌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일본이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바꾸어 군국주의 재무장의 길로 공연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 실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화헌법》 개정, 그것은 재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평화헌법》

지난 세기 40년대에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아시아 인민들에게 막대한 재난과 희생을 강요한 일본군 국주의 전범국, 전제국으로서 아시아와 세계인민들의 용당한 징벌을 받았다.

일본은 비군국화와 민주화, 평화를 바라는 아시아와 세계 진보적 나라인민들의 한결 같은 지탄과 요구에 의해 지난날의 《대일본제국헌법》을 포기하고 1946년 11월 이른바 《평화헌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일본이 영원히 국가정책 수행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며 무장력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특히 해군 및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후 전쟁을 하지 않으며 무력증강을 포기하고 평화적으로 존재할 것을 국제사회에 법적으로 담보하고 1947년 5월부터 그것을 시행하였다.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기 위한 책동

일본반동들은 《평화헌법》이 제정된 후에 줄곧 그에 불만을 가지고 언제 이전 《때만 오면》 그것

을 수정하여 일본을 헌법상 《군대를 가질수 있는 나라》,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여 왔다.

별짜 1958년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정부적립장을 밝힌바 있는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의 개정에 대하여 거듭 협상을 하였다. 랭전후 미국의 해외침략과 《반례로전》에 편승하여 《주변 사태법》, 《해로대책 지원법》, 《유사시》 관련 3법안을 제정하여 《평화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 왔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침략 정책수행에 적극 가담하는 한편 일본사회에 군국주의 열기를 불러일으키면서 헌법개악에 더욱 열을 올리였다.

특히 2006년 수상자리를 타고 앉은 자민당의 아베는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전쟁헌법을 조작하며 《자위대법》을 개정하여 해외침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합법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총적 목표로 내세웠다.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의 우익 정치세력들은 《평화헌법》의 구속과 제한을 받음이 없이 《집단적 자위권》의 명목하에 지구상의 그 어디에서든 공개적인 해외침략을 마음대로 감행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재정비 완성하기 위해 2007년 5월 국민투표로 《평화헌법》을 개정 할 수도 있다는 《국민투표법》을 채택하고 전쟁헌법을 만들기 위한 책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후 채택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평화헌법》 제9조의 공식 해석을 변경시켜 해외에서 《자

제침략군의 성 노예로 끌려가 청춘도 생명도 깡그리 짓밟히지 않으면 안되었다. 혁사는 침략군의 타민족에 대한 악행과 죄악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타민족의 존엄과 전통, 인륜도덕마저 깡그리 짓밟다 못해 지어 말과 글,

를 정해놓고 《유사시 자위대의 자동개입》에 대해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여 대아시아지역 전략, 나아가서 세계 평양양지역의 《맹주》가 되기 위한 제2의 태평양전쟁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정치하기 그지없는 일본은 과거 저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특대형 범죄들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미화분식하면서 또다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겠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지금 일본은 해외침략의 첫 번째 대상으로 조선반도

위대》 무력을 사용하고 평화유지작전에 군인들을 파견할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대대적으로 소개 선전되고 그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금지해제에 관한 내각회의안이 채택되었다.

일본반동들은 로풀화 되고 있는 군국화의 기류를 타고 《평화헌법》 제96조를 재검토하기 위한 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제9조에 대한 개정을 하자면 앞서 그 개정의 돌파구로 되는 헌법 제96조를 개조해야 한다. 헌법 제9조에 의하면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하자면 반드시 국회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형편에서는 국회에서 제9조에 대한 개정 표결을 진행한다면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받기 곤란하였다.

이로부터 일본의 집권자인 아베를 비롯한 국우익 반동정객들은 제96조를 먼저 개정하는데 달라붙었다. 이것만 실현되면 제9조 개정이 수월해지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드는데도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현재 일본의 헌법개악은 시간문제로 되었다. 일본은 매일이라도 《기회》만 조성되면 국회에서 당장 헌법 제96조를 수정할것이며 지금까지 모지름을 쓰며 추진시켜온 《평화헌법》의 기본조항인 제9조도 개악할수 있는 법률적 대안을 완전히 마련하게 될 것이다. 《평화헌법》 제9조가 깨여져 나갈 때면 형식적이나마 존재하던 《평화헌법》은 전쟁헌법으로 순간에 바뀌여 일본은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범적, 조항들은 침략성, 호전성

을 치칠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과도 서슴없이 결탁하는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을사오적》을 훨씬 능가하는 특등매국역적 무리임이 틀림없다.

박근혜 《정권》의 친일 매국행위는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 민족이 겪은 망국의 역사가 주는 죄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침략적인 외세의 대포나 총칼 못지 않게 위험한 것이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역적들의 매국행위라는 것이다. 민족내부에 역적배들이 살판치면 민족의 자주권은 짓밟히고 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당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의 군사적 공모 결탁에 국정스레 매달리고 있는 것은 상전을 등에 업고서라도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대결 중심의 발로로서 침략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용납 못할 매국행위가

전문가들의 참가하에 작성된 《아미타지보고 2》도 일본에 헌법을 개정하고 방위력과 해외파견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전 미국과 정보국장관이었던 데니스 블래어가 《일본이 전후 한 때 경무장 및 경제증시의

로선을 취했던 것은 불건전한 것이었다. 고 하면서 《일본은 헌법 제9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만들기 위한 미군의 책동이 어느 경에 이르렀는가를 시사해준다.

2011년 2월 22일 미국이 남조선 피뢰군과 해마다 진행하는 합동군사연습에 일본군 《자위대》를 매번 참가시킬 것을 일본에 요구한 것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아예 무시해버리라는 뜻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자멸행위

이 체질화되어 있는 일본 반동들에 의하여 죽은 조항들로 되어버렸다.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면 《자위대》는 이른바 《나라의 (방위)》를 위하여 행동하는 무장부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지난날의 《황군》으로 개편되어 미제의 대조선, 대아시아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벌리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맹주》가 되기 위한 제2의 태평양전쟁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우익세력은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협력으로 자라났다. 일본 정계에서 일어난 우익화의 열풍으로 일부 일본 인들조차 그 열풍에 몸이 달아 제정신을 잃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미가제》

이 끌백번 사죄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풀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적폐당은 일본이 던져 주는 몇 푼의 돈을 두고 《배상금의 성격이 있다.》느니, 《미래지향적 판계를 위한 파거사 정리》니 뭐니 하면서 성노에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계기》가 마련된 듯이 희롭게 놀아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조선 당국은 온 겨레의 한결 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일본군 성노에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그 무슨 《화해, 치유재단》이라는 것을 조작해내고 일본이 《재단》에 기부하는 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일본군 성노에 피해자들과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몇 푼의 돈에 팔아먹는 너절한 매국배족 행위이다.

역사상 그 류례를 찾을 수 없는 전악무도한 일본군 성노에 범죄는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인 정파 사죄, 배상이 없이는 최종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 일본에 대한 조선민족의 퍼맺힌 원한은 쪽발이들

일본에 재침의 문을 열어준다

탁에 매달리고 있는 박근혜 보수파당의 행위는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본에게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민족수난의 혁사를 되풀이하려는 천추에 용납 못 할 사대국 행위이며 극악한 반민족 범죄이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도 죄 많은 나라이다. 일제의 야만적인 40여년의 식민지 통치기간 100여 만명의 조선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고 840만여명이 강제징용에 끌려가 노예로 동을 강요당하였으며 20만의 조선녀성들이 일

추김밀에 벌어지는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적 결탁이 미국, 일본과의 3각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겪은 구름을 몰아오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의 군사적 공모 결탁에 국정스레 매달리고 있는 것은 상전을 등에 업고서라도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대결 중심의 발로로서 침략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용납 못할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동족을 해칠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과도 서슴없이 결탁하는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을사오적》을 훨씬 능가하는 특등매국역적 무리임이 틀림없다.

본사기자 김철호

이 끌백번 사죄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풀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적폐당은 일본이 던져 주는 몇 푼의 돈을 두고 《배상금의 성격이 있다.》느니, 《미래지향적 판계를 위한 파거사 정리》니 뭐니 하면서 성노에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계기》가 마련된 듯이 희롭게 놀아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조선 당국은 온 겨레의 한결 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일본군 성노에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그 무슨 《화해, 치유재단》이라는 것을 조작해내고 일본이 《재단》에 기부하는 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일본군 성노에 피해자들과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몇 푼의 돈에 팔아먹는 너절한 매국배족 행위이다.

역사상 그 류례를 찾을 수 없는 전악무도한 일본군 성노에 범죄는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인 정파 사죄, 배상이 없이는 최종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 일본에 대한 조선민족의 퍼맺힌 원한은 쪽발이들

민족반역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 겨레는 추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에 게 준엄한 혁사의 징벌을 안길 것이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평양대동강맥주축전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며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식당배 『대동강』 호와 유보도에서 이름난 대동강맥주의 풍미를 한껏 맛보는 그 느낌이란 이루 말할수 없다.

축전장에서 대동강맥주를 맛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주 멋있고 홀륭한 맥주』, 『동방제일의 맥주』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축전준비위원회 상무로 한현은 이번 축전에는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대동강맥주와 여러가지 맥주안주들이 출품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한 맥주애호가는 대체로 강한 풍미의 맥주인 1번 맥주를 찾습니다. 손님들의 대다수는 깔끔한 맛, 부드러운 맛의 맥주를 찾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흰쌀맥주인 5번 맥주를 즐겨 찾습니다.』

아랫다운 봉사원처녀들이 손님들의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맥주를 잔에 붓는 모습도 축전장의 분위기를 이채롭게 하고 있다.

때는 삼복철이 갓 지난지라 아직도 30°C의 기온을 오르내린다. 사람들은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맥주만 한것이 없다고들 한다.

이렇듯 인기높은 대동강맥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 사랑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에 큰 규모의 현대적인 맥주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공장을 건설할 위치도 친히 정해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무어주시었으며 이 공장이름을 『대동강맥주공장』으로 달아주시였다. 그리하여 2002년 평양에 대동강맥주공장이 홀륭히 일떠섰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공화국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려 가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이렇듯 평양대동강맥주축전 까지 열리였다.

대동강맥주는 력사는 그리 오래지 않지만 공화국인민들과 외국인들속에서 청량한 맛과 뛰어난 품질로 하여 호평이 대단하다.

몇년전에는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평양에서 대동강맥주를 맛본 맥주전문가들이 극찬을 했다. 대동강맥주는 아주 홀륭한 맥주이다.』라는 기사를 실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축전장에 왔던바에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맥주를 한번씩 다 맛보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기자도 대동강맥주의 진미를 맛보리라 결심하고 먼저 흑맥주인 7번 맥주를 마셔보았다.

역시 대동강맥주맛은 좋았다. 풍성한 거품이 크림처럼 부드럽게 입술주변을 간지럽히는가 싶더니 커피처럼 강한 씁쓸함뒤에 초콜렛같은 달콤한 냄새가 살짝 풍겼다.

이번에는 1번맥주를 맛보았다. 7번맥주보다 훨씬 걸쭉했다. 발효된 보리의 텁텁한 맛이 강하게 느껴졌다. 꾸밈없이 순수한 보리맥주맛이었다. 어릴적 고향마을의 정취가 다가오는듯 한 느낌의 맥주였다.

그다음엔 3번맥주, 50%의 보리길금, 50%의 흰쌀이 배합된 맥주라는데 흰쌀의 깨끗하고 상쾌한 맛과 보리길금의 부드러운 맛 그리고 쓴 맛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유럽과 아시아의 맥주품격을 다같이 갖춘 맥주였다.

5번 맥주는 확실히 여성적인 맥주였다. 풍성한 거품과

황금색빛 갈이 특징인 이 맥주는 입속에 은근히 남는 향과 맛의 어운이 특별히 좋았다.

6번맥주는 구수한 향이 입안에 오래 남으며 거품 또한 고소하여 더욱 깊은 맛을 즐길수 있었다. 첫맛은 쏟아지는 편이지만 입안에서 여러번 돌리면 단맛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자기만의 취미대로 옷을 고르듯이 맥주도 자기 입맛에 맞는 맥주를 고른다. 이러한 수요에 비추어볼 때 1번부터 7번까지의 대동강맥주는 각이한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만족시키는 완벽한 맥주라고 할수 있다.

맥주맛보기 경연과 맥주상식 무대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시청자들과 친숙해진 조선중앙TV의 방송원들이 나와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인민봉사총국에서 준비한 예술공연도 축전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고 있다.

『정말 우리의 대동강맥주는 최고입니다. 하루일을 끝내고 여기 축전장에서 대동강맥주를 마시는 그 멋이란 뭐라고 표현할길이 없습니다.』

평양326전선공장로동자리성철이 하는 말이였다.

축전은 밤늦게까지 계속되고 있다.

누구나 시간이 가는것을 아쉬워하며 평양의 밤을 즐기고 있다. 축전장을 나오는 사람들의 시야에는 불밝은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진다.

본사기자 김준경



집은 삶의 보금자리이다. 삶의 겠는가. 보금자리가 귀중하기에 가정이라는 말자체도 집을 전제로 하여 생겨났을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집이건 만 그에 비낀 사회의 모습은 하나 같지 않다.

지난해 누구나 부러워하는 미래과학자거리의 궁궐같은 새 살림집들에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보금자리를 편 공화국에서 지금은 려명거리가 한창 일어서고 있다.

미래과학자거리의 새 집에 입사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한 젊은 연구자가 터치던 결정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온다.

『평범한 연구사인 저에게 이런 희한한 살림집을 안겨주니 이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단 말입니까.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이라 고만 하겠는가.

최근간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창전거리살림집들이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들을 비롯하여 어디서나 현대적인 새 살림집을 받아안은 고마움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리고있다.

따뜻한 보금자리마다에 넘쳐나는 인민들의 기쁨넘친 모습에서 확인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창조되는 모든 문명의 주인이 바로 평범한 근로인민들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1%의 특권층이 주인행세를 하는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99%의 근로대중이 온전한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파기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한칸짜리 살림방을 마련하자면 일반로동자가 받는 로임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100여년동안이나 저축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엄청난 집값때문에 오죽하면 『제 집마련이 평생소원』이라는 말이 나들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서는 매일밤 수천명의 집없는 사람들이 거리와 골목들, 다리와 지하철도에서 잠을 청하고있다. 엄청난 집값으로 제 집을 쓰고 살 생각조차 못하고 방랑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집없는 사람들의 도시』로 알려진 어느 한 도시에서는 매일 5만 1 000명이 삶이 한지에서 새날을 맞고있는 형편이다.

한지맥으로 잇닿은 남조선에서도 엄청나게 비싼 집값때문에 자기 집이 없이 생활하는 세대수가 무려 700여만세대나 되어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세방살이조차 할수 없어 0.5~1m²되나마나 한 쪽방, 판자집, 천막, 웜막 등 집 아닌 집과 심지어 동굴에서 살아가는 세대만도 68만세대에 달하고있다.

집을 마련하는것이 오죽 힘들었으면 남조선의 절대다수의 청년들속에서 련애,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도 보자라 집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 『삶포세대』가 늘어나고있다고 개탄하겠는가.

날로 악화되는 경제형편으로 남조선의 주민세대들이 지고있는 빚만 해도 9 000여 억US\$인데 이것은 매 세대당 5만US\$의 빚을 지고있는것으로 된다고 한다.

이런 형편에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비싼 집값을 치르고 제 집을 마련한다는것은 허황한 꿈으로 되고있다.

반면에 국소수의 부유계층은 여러재의 호화주택에서 풍청거리고 있으니 부의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근로대중은 언제 가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수 있는것이다.

보금자리에 비낀 두 현실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지하며 참다운 문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한 덕수

림하영은 우를 놀랐다. 파도소리가 신통히도 구원을 바라는 아들에의 목소리로 들려왔던 것이다.

『살려줘! 살려줘!』

『혹-』

마른 울음이 벼려낸 창끌이란가. 가슴팍을 사정없이 찔러대는 아픔이 계속되었다.

얼마후에야 림하영은 험 없는 몸을 추스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에손에 흰꽃을 든 긴 행렬이 어디론가 흘러가고있었다.

류다른 이해 봄엔 꽃이 참 많기도 하다. 허나 생의 활력이 넘치는 환희의 꽃이 아니라 상실의 아픔이 하얗고 노랗게 피운 비애의 꽃들 천지였다.

『다들 분향소로 가네요.』

온미가 속삭이듯 하는 말이였다.

(실종자들의 일가이겠지.)

온미의 손에 이끌려 림하영도 분향소에 들어섰다.

에도의 조화가 바다를 이루고 노란 리봉들이 빽빽이 들어선 속에서 각계각층의 남녀로소가 목념하고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만이 아니었다. 자원봉사자, 신부, 동료예술인들과 택시운전사도 있었다.

불덩어리로 활활 타며 혼을 빼는 숭배신이였고 무림들 말이예요.』

대밖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뜩한 얼음 산이였다. 언제 봐야 인사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도도히 가버리군 하는 무례함에 기가 질렸다. 이 제 보니 동정이 죽기보다 삶에 우정 맹기를 뿐은지 않는다는걸 모두앞에 증명했라는 생각이 들었다. 림하영은 판례를 깨고 은미에게 태일렀다.

『여긴?!』

율상을 한 은미가 제꺽 응대를 하였다.

『병원이예요. 마침 눈에 띠었기 때문이지...』

림하영은 소스라치며 몸을 일으켰다.

『정현이, 정현이가 기다려.』

『같이 가요.』

말릴수 없는 형편인 줄 깨달은 은미가 덤벼쳤다.

『넌 왜? 공연한 인정이야. 떨어져.』

은미는 도두룩한 입술을 감쳐물며 떼를 쓰듯 라섰다.

그러거나 말거나 은미는 제 잡담 림하영을 부축하고 나섰다.

림하영은 저으기 놀랐다. 여태 씨글씨 보아온 은미가 이다지 마음씨 착한 처녀인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림하영은 수수께끼의 녀인이었다. 무대위에 온몸이

불덩어리로 활활 타며 혼을 빼는 숭배신이였고 무림들 말이예요.』

대밖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黠한 얼음 산이였다. 언제 봐야 인사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도도히 가버리군 하는 무례함에 기가 질렸다. 이 제 보니 동정이 죽기보다 삶에 우정 맹기를 뿐은지 않는다는걸 모두앞에 증명했라는 생각이 들었다. 림하영은 판례를 깨고 은미에게 태일렀다.

『여긴?!』

율상을 한 은미가 제꺽 응대를 하였다.

『병원이예요. 마침 눈에 띠었기 때문이지...』

림하영은 소스라치며 몸을 일으켰다.

『정현이, 정현이가 기다려.』

『같이 가요.』

말릴수 없는 형편인 줄 깨달은 은미가 덤벼쳤다.

『넌 왜? 공연한 인정이야. 떨어져.』

은미는 도두룩한 입술을 감쳐물며 떼를 쓰듯 라섰다.

그러거나 말거나 은미는 제 잡담 림하영을 부축하고 나섰다.

림하영은 저으기 놀랐다. 여태 씨글씨 보아온 은미가 이다지 마음씨 착한 처녀인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림하영은 수수께끼의 녀인이었다. 무대위에 온몸이

불덩어리로 활활 타며 혼을 빼는 숭배신이였고 무림들 말이예요.』

대밖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黠한 얼음 산이였다. 언제 봐야 인사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도도히 가버리군 하는 무례함에 기가 질렸다. 이 제 보니 동정이 죽기보다 삶에 우정 맹기를 뿐은지 않는다는걸 모두앞에 증명했라는 생각이 들었다. 림하영은 판례를 깨고 은미에게 태일렀다.

『여긴?!』

율상을 한 은미가 제꺽 응대를 하였다.

『병원이예요. 마침 눈에 띠었기 때문이지...』

림하영은 소스라치며 몸을 일으켰다.

『정현이, 정현이가 기다려.』

『같이 가요.』

말릴수 없는 형편인 줄 깨달은 은미가 덤벼쳤다.

『넌 왜? 공연한 인정이야. 떨어져.』

은미는 도두룩한 입술을 감쳐물며 떼를 쓰듯 라섰다.

그러거나 말거나 은미는 제 잡담 림하영을 부축하고 나섰다.

림하영은 저으기 놀랐다. 여태 씨글씨 보아온 은미가 이다지 마음씨 착한 처녀인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림하영은 수수께끼의 녀인이었다. 무대위에 온몸이

불덩어리로 활활 타며 혼을 빼는 숭배신이였고 무림들 말이예요.』

대밖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黠한 얼음 산이였다. 언제 봐야 인사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도도히 가버리군 하는 무례함에 기가 질렸다. 이 제 보니 동정이 죽기보다 삶에 우정 맹기를 뿐은지 않는다는걸 모두앞에 증명했라는 생각이 들었다. 림하영은 판례를 깨고 은미에게 태일렀다.

『여긴?!』

율상을 한 은미가 제꺽 응대를 하였다.

『병원이예요. 마침 눈에 띠었기 때문이지...』

림하영은 소스라치며 몸을 일으켰다.

『정현이, 정현이가 기다려.』

『같이 가요.』

말릴수 없는 형편인 줄 깨달은 은미가 덤벼쳤다.

『넌 왜? 공연한 인정이야. 떨어져.』

은미는 도두룩한 입술을 감쳐물며 떼를 쓰듯 라섰다.

그러거나 말거나 은미는 제 잡담 림하영을 부축하고 나섰다.

림하영은 저으기 놀랐다. 여태 씨글씨 보아온 은미가 이다지 마음씨 착한 처녀인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림하영은 수수께끼의 녀인이었다. 무대위에 온몸이

불덩어리로 활활 타며 혼을 빼는 숭배신이였고 무림들 말이예요.』

대밖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黠한 얼음 산이였다. 언제 봐야 인사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도도히 가버리군 하는 무례함에 기가 질렸다. 이 제 보니 동정이 죽기보다 삶에 우정 맹기를 뿐은지 않는다는걸 모두앞에 증명했라는 생각이 들었다